

한국 동남권과 일본 후쿠오카현간의 산학협력 방안

금 성 근(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차 례 >

- | | |
|-------------------|------------------------|
| 1. 서 론 | 4. 후쿠오카현의 국제적 산학협력의 사례 |
| 2. 양 지역의 개요 | 5. 동남권-후쿠오카간 산학협력 방안 |
| 3. 산학협력의 동향과 지원조직 | 6. 맺는 말 |

1. 서 론

정부나 자치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 벤처의 창업활성화 등을 내걸고 있다. 그 핵심은 기술개발형 산업의 육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는 산학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는 혁신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생산, 판매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경제사회의 고도화, 기술의 발달, 글로벌 경쟁의 격화 등으로 시장의 니즈에 대한 인지, 설계, 시작, 재설계,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기술지식·정보가 혁신의 모든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산학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 등으로 산학협력은 동일 지역과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국가와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저하, 고용창출력의 저하 등 다양한 경제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한일 양국은 이들 과제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술혁신에 의한 높은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경제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1996년 ‘과학기술기본계획’, 1997년 ‘대학의 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1998년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1999년 ‘중소기업기술혁신 제도’의 창설 및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제정, 2000년 ‘산업기술력강화법’ 등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정비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산학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유도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위임사업 또는 정부부처와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다양한 산학협력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도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의 동남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과 일본의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 키타큐슈시를 포함한 후쿠오카현)의 산학협력의 동향과 지원조직 등을 살펴보고, 양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국경을 넘어 산학협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방안을 동남권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양 지역의 개요

1) 경제적 위상

양 지역은 약 200km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고, 비행기로 30분, 고속여객선으로 2시간 55분의 거리에 있다. 동남권은 2광역시 1도의 행정체제를,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 키타큐슈시를 포함한 후쿠오카현)은 2정령시를 포함한 1현의 행정체제를 지니고 있다. 양 지역은 모두 면적에 비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양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1,300만명에 달한다.

동남권은 면적의 전국비중 12.4%에 비하여 인구(16.3%), 지역총생산액(16.6%), 취업인구(16.0%), 사업체수(16.9%)의 전국비중이 높다. 특히, 동남권은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어 공업출하액 및 수출액의 전국비중이 25%를 상회하고 있다.

후쿠오카현은 면적의 큐슈 7현 비중 11.8%에 비하여 인구(37.6%), 지역총생산액(39.1%), 취업인구(38.7%), 사업체수(36.3%), 공업출하액(38.6%)의 비중이 매우 높다. 큐슈지역의 경제활동이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동남권의 경제적 위상

구 분	연도	단위	동남권	동남권		
				부 산	울 산	경 남
면 적	2003	km ²	12,338 (12.4)	763 < 6.2>	1,057 < 8.6>	10,518 <85.2>
인 구	2002	천명	7,830 (16.3)	3,685 <47.1>	1,066 <13.6>	3,079 <39.3>
GRDP(명목)	2003	10억원	106,257 (16.6)	38,287 <36.0>	24,279 <22.9>	43,691 <41.1>
취업인구	2003	천명	3,531 (16.0)	1,610 <45.6>	476 <13.5>	1,445 <40.9>
사업체수	2003	개소	539,854 (16.9)	268,339 <49.7>	64,265 <11.9>	207,250 <38.4>
공업출하액	2003	10억원	169,366 (25.1)	23,351 <13.8>	78,202 <46.2>	67,813 <40.0>
수출액	2003	백만달러	51,566 (26.6)	4,845 < 9.4>	27,485 <53.3>	19,236 <37.3>
특허출원건수	2003	건	4,403 (4.9)	2,032 <46.2>	468 <10.6>	1,903 <43.2>

주 : ()안은 동남권의 대전국비중(%), < >안은 대동남권비중(%)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

특허청, 산업재산권통계

한국무역협회

<표 2> 후쿠오카현의 경제적 위상

구 분	연도	단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키타큐슈시	그 외
면 적	2003	km ²	4,974 (11.8)	340 < 6.8>	485 < 9.8>	4,149 <83.4>
인 구	2003	천명	5,051 (37.6)	1,328 <26.3>	999 <19.8>	2,724 <53.9>
GRDP(명목)	2001	억엔	174,653 (39.1)	61,311 <35.1>	35,966 <20.6>	77,376 <44.3>
취업인구	2001	천명	2,255 (38.7)	761 <33.7>	434 <19.3>	1,062 <47.0>
사업체수	2001	개소	242,611 (36.3)	73,723 <30.4>	51,052 <21.0>	117,836 <48.6>
공업출하액	2002	억엔	70,252 (38.6)	6,359 < 9.1>	15,605 <22.2>	48,288 <68.7>
특허출원건수	2002	건	3,788 (69.1)	-	-	-

주 : 공업출하액은 종업원 4인 이상의 사업체임.

()안은 대큐슈7현비중(%), < >안 대후쿠오카현비중(%).

자료 : 九州經濟調査協會(2004), 圖說九州經濟2005.

西日本新聞社 廣告局(2004), 九州データ・ブック2005.

特許廳(2004), 特許行政年次報告書2003年版.

2) 전략산업

한국의 경우,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에서 지역별로 각각 4개의 전략산업이 선정되었다. 부산에는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산업,

울산에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산업, 경남에는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이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표 3> 동남권의 전략산업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동남권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2004),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p.139

한편, 후쿠오카현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환경산업, 바이오(첨단의료, 의약품, 기능성 식품), 나노테크, 로봇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되어 있다. 한편, 큐슈경제산업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산학관 네트워크화의 촉진과 환경·리사이클산업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아시아 비즈니스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부문에서의 ‘아시아비즈니스 거점’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양 지역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자동차, 바이오, 로봇산업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표 4> 후쿠오카현의 주요 산업

구 분	주요 산업	차세대산업
후쿠오카현	반도체, 자동차	환경산업, 바이오(첨단의료, 의약품, 기능성 식품), 나노테크, 로봇산업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3) 연구개발기반

한국에 있어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에서 지역별로 각각 4개로 선정된 전략산업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단들로는 연구기관, 기술인력, 연구개발자금 등이 있다. 동남권의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비중은 각각 8.8%, 10.7%, 10.1%로 동남권의 인구 전국비중 및 제조업의 전국비중에 비해 낮다. 특히, 연구개발비와 기업체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비중이 낮다. 이에 비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개발기관의 전국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5> 동남권의 연구개발기반(2002년)

구 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전 체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동남권 (전국비중(%))	8.8	10.7	10.1	13.7	13.3	9.8
부 산	1.5	4.3	3.9	5.2	6.9	3.7
울 산	2.0	2.0	1.3	0.0	1.8	1.3
경 남	5.3	4.4	4.9	8.5	4.6	4.8
전 국	100.0 (17.3조원)	100.0 (279.8천명)	100.0 (7,554개소)	100.0 (211개소)	100.0 (389개소)	100.0 (6,954개소)

자료 : 과학기술부(2003), 2002년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2004),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p.23에서 재정리.

후쿠오카현은 큐슈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 연구개발기반도 집중되어 있다. 후쿠오카현의 연구개발기반을 큐슈지역의 데이터로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큐슈지역에는 국·공설 연구기관, 연구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공장 등이 집적되어 있어 연구자·기술자 등의 인재가 비교적 풍부하다. 최근, 산업기술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과 대학·국가의 연구기관에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환경정비 등 산학협력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에 큐슈지역에서는 대학의 특허를 기업에 이전하는 TLO의 정비가 진전되어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⁷⁾ 하지만, 큐슈지역은 연구개발의 기획, 신규기술의 독자개발기능의 면에서는 기반이 약하다.

<표 6> 큐슈지역의 연구개발기반(2002년)

구 분	지역공동 연구센터수	대학 연구자수	공설연구소 연구자수	연구기능보유 공장입지수	지역공동 연구센터수	대학과의 공동연구수
전국비중(%)	13.6	9.4	13.2	13.1	13.6	10.5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2003.4.23.), ‘産學官連携による地域經濟社會の發展を目指して一産學官連携活性化への道一’報告書について.

17)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p.13.

4) 한국과 큐슈간 주요 경제교류회의

한국과 큐슈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산학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양국의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와 환황해경제기술회의가 있다. 그 이외에도 한국과 큐슈에는 교류회, 미션 등의 명칭으로 기업간 교류, 산학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한국과 큐슈간의 교류회로서는 아시아링크큐슈비즈니스교류회(2005년 6월, 제1회, 후쿠오카시), 2005큐슈(일본)·한국산업기술교류미션(2005년 2월, 기타큐슈시) 등이 있다.

(1)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국과 큐슈 쌍방의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경영자원을 상호 보완하며 무역·투자 및 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의 촉진을 목적으로, 1993년 11월에 기타큐슈시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7>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의 교류현황

회	개최지	개최시기	종래의 주요 성과
제1회	기타큐슈시(큐슈)	1993년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큐슈 산업기술교류미션 (1997년~) ·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개최 (1997년~) · 기타큐슈 국제기술협력 연수생 수용 및 전문기술자 파견(1994년~) · 한일 우호기술연수생 프로그램의 협력(2000년~) ·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협력체제의 구축(2001년) · 한일광IT콜리도 프로젝트(2001년)
제2회	서울특별시(한국)	1995년 2월	
제3회	나가사키시(큐슈)	1996년 2월	
제4회	전라북도 전주시(한국)	1997년 6월	
제5회	오이타현 벳부시(큐슈)	1998년 7월	
제6회	광주광역시(한국)	1999년 5월	
제7회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큐슈)	2000년 9월	
제8회	경상남도 창원시(한국)	2001년 6월	
제9회	가고시마현 마키조노정(큐슈)	2002년 8월	
제10회	제주도 서귀포시(한국)	2003년 8월	
제11회	쿠마모토현 쿠마모토시(큐슈)	2004년 7월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이 회의에서는 양국의 경제·산업교류에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쌍방에서 제안하여 그 실시에 관한 컨센서스를 얻는 것 이외에 동일사업으로서 무역세미나 및 투자환경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교류의 진척과 더불어 산업기술교류미션의 상호파견과 아시아산업교류페어에의 참가 등 기업간 교류도 정착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쌍방의

기업과 경제단체가 회의에 맞추어 민간라운드 테이블을 설치하여 민간독자의 교류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루어지고 있다.¹⁸⁾

(2)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일본의 경제산업성큐슈경제산업국, 한국의 산업자원부, 중국의 상무부, 과학기술부가 참여하는 3개국 정부에 의한 회의 하에 관계 자치체나 경제단체, 기업의 관계자,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역·투자, 기술·인재 등의 상호 협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비즈니스의 계기를 잡는 장이다.

거기서는 무역·투자·기술교류·인재교류의 촉진책으로서 제안된 구체적인 ‘환황해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아시아 및 세계에 ‘열린 경제권’으로서의 환황해 경제권의 형성, 큐슈와 아시아의 공생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⁹⁾

<표 8>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의 교류현황

회	개최지	개최시기	종래의 주요 성과
제1회	후쿠오카시(큐슈)	2001년 3월	· 환황해지역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틀의 설치 · 3국의 산학관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 환황해 인턴십의 추진 · 무역·투자미션의 상호 파견
제2회	전주시(한국)	2002년10월	
제3회	웨이하이시(중국)	2003년 9월	
제4회	미야자키시(큐슈)	2004년 8월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3. 산학협력의 동향과 지원조직

1) 산학협력의 동향

(1) 동남권의 동향

최근의 한국의 산학협력은 중앙부처 주도형 산학협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부차원의 산학협력관련사업으로는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다.

여기서,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동남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p.21.

19) 九州經濟産業局 國際企劃調査課(2004), 九州の經濟概況, p.21.

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관련시책 가운데 동남권과 연관성이 큰 것은 우수연구집단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수연구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로 구분·운영된다. 우수연구센터 사업은 과학연구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와 공학연구센터(ERC, Engineering Research Center)로 구분·추진되고 있다. 특히, ERC는 산업발전과 연계된 핵심기술연구의 수행 및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센터이다. 지역협력 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는 설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연구 집단화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술 연구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에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초·응용과학기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특성화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연구활동을 통해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⁰⁾

동남권에서의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은 환경, 기계공학, 항만관리, 바이오의 연구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표 9> 동남권의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지역	사업명	지정 연도	분 야	센 터 명	설치대학
부산	ERC	2002	기계공학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부산대
	RRC	1996	환 경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부산대
	RRC	1998	항만관리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동아대
	RRC	2001	전자세라믹스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동의대
	RRC	2002	신형소재	신형소재가공청정공정개발연구센터	동아대
	RRC	2003	에너지기계	친환경첨단에너지기계연구센터	부경대
울산	SRC	1999	생 물	면역제어연구센터	울산대
	RRC	1998	기계부품	기계부품·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	울산대
	RRC	2002	기 계	네트워크 기반자동화연구센터	울산대
경남	RRC	1996	항공부품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경상대
	RRC	1998	항공부품	항공기부품기술연구센터	경상대
	RRC	1998	공작기계	공작기계기술연구센터	창원대
	RRC	1999	해양환경	연안역폐자원 및 환경연구센터	경남대
	RRC	2001	바 이 오	바이오헬스소재연구센터	인제대
	RRC	2002	바 이 오	동물생명산업지역협력연구센터	진주산업대

자료 :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과학기술부, 2002과학기술연감에서 재정리

20) 윤윤규·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85~88.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 관련사업으로는 두뇌한국21(BK21)사업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이 있다. 두뇌한국21(BK21)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역대학육성분야, 그리고 특화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대학 육성분야이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은 대학의 특성화 발전, 우수 지역인재 육성,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 대학은 교육과정 개선, 운영계획,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²¹⁾

동남권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두뇌한국21(BK21)사업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은 항만산업, 영상·IT, 기계산업의 인력양성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표 10> 동남권의 BK21사업과 NURI사업(2004년)

사업명	사업단	설치대학	대학소재지
BK21	산업자동화 및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단	부경대, 동아대, 부산대	부산
	BK21지역선도형기계산업인력양성사업단	부경대, 동의대	
	지역선도형기계산업인력양성사업단	동아대, 한국해양대	
	지식집약형기계산업인력양성사업단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경남, 울산
	창의적수송기계양성인력사업단	경상대, 인제대	경남
NURI	지식기반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국해양대 외 3개 대학	부산
	전략적 국제 산학협력을 통한 디지털영화 영상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동서대 외 3개 대학	
	유비쿼터스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동서대 외 2개 대학	
	영상·CT 인력양성사업	경성대 외 1개 대학	
	금융·선물·보험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산대 외 1개 대학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	울산대	
	산업맞춤형 정밀화학인력 양성사업	울산대 외 1개 대학	
	지식기반 기계산업인력양성사업	창원대 외 3개 대학	경남
	첨단기계산업 기술혁신인력 양성사업	경상대 외 2개 대학	
	Smart 부품·소재 인력 양성사업	경상대 외 1개 대학	
지역맞춤형 수자원재해관리 인력양성사업	인제대 외 1개 대학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두뇌한국21 사업실적 보고서, NURI사업선정 결과에서 재정리.

21) 윤윤규·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90~91.

산업자원부의 지역산업 육성 관련사업에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그리고 종합지원사업인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이 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되는 종합지원사업이며,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은 2004년부터 지역거점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개발 기반조성, 연구개발 자금, 인력양성 분야를 동시에 지원하는 종합지원사업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기술개발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표준화, 국제기술협력, 기술지도 등의 기술기반과 환경의 정비·보강을 통해 기술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개발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산학협력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기술이전사업, 기술연구집단화사업 등이 있다. 기술연구집단화사업에는 테크노파크(TP),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신기술창업보육(TBI), 지역디자인센터(RDC) 등이 있다.²²⁾

TP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등으로 구성된 제3섹터방식의 재단법인으로서, 산·학·연의 기술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 창업보육, 정보교류, 교육훈련, 시험생산, 행정지원 시설 등 각종 기업서비스 지원시설을 집적시켜 신기술개발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기술혁신센터(TIC)사업의 주요 기능은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및 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체 인력 재교육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배출, 국내외 첨단 기술동향·기술정보의 산업체 제공·유통,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제공과 기술·경영자원, 기업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고가의 실험·측정장비 구축·운영 등이다.

(2) 후쿠오카현의 동향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계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업으로는 ‘산업클러스터계획’과 ‘지역클러스터창생사업’이 있다.

큐슈의 ‘산업클러스터계획’에는 ‘큐슈실리콘 클러스터계획’과 ‘큐슈지역환경 리사이클 산업교류플라자(K-RIP)’가 있다. ‘큐슈실리콘 클러스터계획’은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적의 효과를 한층 발휘하고, 혁신적인 산업풍토를 형성해 가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5월 14일에는 ‘큐슈반도체이노베이션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큐슈지역환경 리사이클 산업교류플라자(K-RIP)’는 1999년 11월에 환경·리사이클 산업에 관계되는 산학관의 관계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것은 큐슈지역의 환경비즈니스의 육성·진흥을 통해서 큐슈지역을 순환형경제사회의 실증적 모델로 함과 동시에 환경·리사이클 산업이라는 신규산업을 창출함으로써 큐슈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22) 윤윤규·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p.93~94.

2001년부터 ‘산업클러스터계획’으로 책정되었다.

큐슈의 ‘지적클러스터창생사업’에는 ‘시스템LSI설계개발클러스터구상(후쿠오카현)’과 ‘키타큐슈휴먼테크노클러스터구상(키타큐슈시)’이 있다. ‘시스템LSI설계개발클러스터구상(후쿠오카현)’에 있어서는, 2000년 6월 관계자에 의해서 ‘시스템LSI설계거점화구상연구회’가 설립되었고, 2001년 2월, ‘실리콘 시(Sea)벨트 후쿠오카’ 프로젝트의 추진기관인 ‘후쿠오카현 시스템 LSI설계거점추진회의’가 산학관 87개사·단체로 발족되었다. 북부큐슈에는 LSI설계관련기업이 다수 입지해 있고, 이들 소프트기업의 연계로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생각이 클러스터 설치의 배경이 되었다. ‘북큐슈휴먼테크노클러스터구상(키타큐슈시)’에 있어서는 1997년 전국에서 선구적으로 ‘에코타운사업’의 지역지정을 받아 환경·리사이클기술의 개발이나 사업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환경관련의 마이크로 나노기술에 있어서 연구기반이 이미 존재한다.²³⁾

이러한 계획들과 더불어, 2004년부터 시작된 대학의 법인화 등으로 공동연구의 건수가 늘어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특허나 새로운 기술·비즈니스 수법을 사업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의한 벤처가 늘어나고 있다. 후쿠오카현의 대학에 의한 벤처는 2004년 3월 현재 38건이 起業하고 있다. 이것은 큐슈 7현의 2/3에 해당한다. 큐슈 7현의 대학에 의한 벤처기업의 사업분야는 IT분야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에너지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제조기술 등 금후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기업도 보인다.

<표 11> 후쿠오카현에 있는 대학에 의한 벤처 현황(2004.3)

현별소재의 분포			사업분야별 분포		
현 명	기업수(개사)	구성비(%)	분 류	기업수(개사)	구성비(%)
후쿠오카현	38	63	IT(정보기술)	27	45
사가현	2	3	환경·에너지	8	13
나가사키현	1	2	바이오테크놀로지	8	13
쿠마모토현	4	6	신제조기술	5	8
오이타현	6	10	신소재	2	3
미야자키현	4	6	기 타	11	18
가고시마현	6	10	합 계	60	100
큐슈7현	61	100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2004. 3), 九州地域大學發ベンチャー事例集에서 재정리.

23) 九州經濟産業局(2003. 4. 23), ‘産學官連携による地域經濟社會の發展を目指して一産學官連携活性化への道-’ 報告書について 참조

2) 산학협력 지원조직과 활동

(1) 동남권의 산학협력 지원조직과 활동

동남권에서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국가기관·기구로서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있다. 그리고, 광역시·도의 행정구역별로 테크노파크와 기술지원단 등이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테크노파크에 부산기술거래소가 설치되어 국내외 기술이전 및 기술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다. 동남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행정기관의 산학협력지원 조직이 대부분이고, 민간중심,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산학협력조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표 12> 동남권의 산학협력 지원조직

기 관 명	소재지	주 요 기 능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부산 경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시책 총괄 산학관 기술협력 등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기술거래소)	부산	전략산업 육성, 산학관 협력 지원 (기술관련 컨설팅, 기술이전)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전략산업 육성, 산업관 협력지원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부산, 울산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소
경남산업기술지원단	경남	중소기업 기술해로 해소

자료 : 해당기관 홈페이지

<표 13> 부산기술거래소의 현황(2004.3)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설립일	2002년 3월
주요사업	기술거래, 우수기술보유자육성, 지역기술거래·이전기반구축, 기업거래, 기술평가 등
기술거래 기반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지역기술이전 전문기관 발굴, 지역기술이전협의회 구성·운영, 기술거래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자료 : 부산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bttb.or.kr)

(2) 후쿠오카현의 산학협력 지원조직과 활동

후쿠오카현에서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국가기관·기구로서는 크게 큐슈경제산업국 산학
관연휴추진실 큐슈지역산학관교류센터, 산업기술총합연구소 큐슈산학연휴센터가 있다.

그리고, 현(縣) 레벨에서의 진흥재단, 지원센터, 지원재단의 이름의 지원기관이 있다. 민간중심의 협회 형태의 후쿠오카벤처마켓협회, 큐슈뉴비즈니스연합회, 후쿠오카산학조인트 플라자 등이 있다. 또한, 기술상담과 기술이전을 주 업무로 하는 대학중심의 기술이전기관(TLO) 등이 있다.

큐슈경제산업국 산학관연휴추진실 ‘큐슈지역산학관교류센터’는 큐슈 관내의 산학관교류관계기관을 연결시켜 광역적 산학관연계를 추진하는 거점으로서 2002년 4월에 설립되었다. 다음 세 가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큐슈지역의 산학관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종합프로듀스기능이다. 큐슈지역의 산학관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가일층 연계를 추진한다. 둘째,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기능이다. 산학관연계에 관한 상담(기술상담, 경영상담, 각종 지원제도의 소개 등)에 대응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기관등을 소개한다. 셋째, 광역적 코디네이터기능이다.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이 지닌 기술니즈와 기업 등의 니즈의 매칭을 도모하여, 사업화나 각종의 공모형연구개발제도에 응모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 기업 등으로부터의 요망에 따라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소개한다.²⁴⁾

<표 14> 후쿠오카현의 산학협력 지원조직

기 관 명	소재지	주요 기능
큐슈경제산업국 산학관연휴추진실 큐슈지역산학관교류센터	후쿠오카시	종합프로듀스기능 종합적 원스톱 서비스기능 광역적 코디네이터기능
(獨)산업기술종합연구소 큐슈산학관연휴센터	토스시 후쿠오카시	기술상담, 공동연구, 수탁연구의 알선, 정보발신, 기술교류
(재)후쿠오카현산업· 과학기술진흥재단	후쿠오카시	연구개발지원, 연구교류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큐슈뉴비즈니스연합회	후쿠오카시	뉴비즈니스의 창출 육성을 위한 지원
후쿠오카벤처마켓협회	후쿠오카시	일본 및 아시아의 벤처기업과 투자자, 상사 등의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후쿠오카산학조인트플라자	후쿠오카시	대학의 기술니즈와 중소기업의 기술니즈를 연결하여 신산업 창출
후쿠오카현인턴십추진협의회	후쿠오카시	인재활용 및 양성을 통한 산학연계
(주)산학연휴기구큐슈	후쿠오카시	기술이전, 연구연계·중계, 컨설팅
(재)키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키타큐슈시	기술이전, 연구연계·중계, 컨설팅

자료 : (社)九州·山口經濟連合會(2003), 九州·山口地域における新規事業支援策.

九州經濟産業局(2004), 九州ベンチャー讀本2004.

24) 큐슈경제산업국 홈페이지(www.kyushu.meti.go.jp) 참조.

해당조직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쿠오카벤처마켓’은 자본과 기술을 매칭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후쿠오카벤처마켓’은 벤처기업과 투자자나 상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기술·서비스를 지니고 자금조달이나 판로확대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는 후쿠오카벤처마켓협회 회원(증권계 캐피탈(6개사), 은행계 캐피탈(13개사), 생보·손보계 캐피탈(7개사) 상사계 캐피탈(1개사), 정부계 캐피탈(2개사), 증권회사(15개사), 은행(24개사), 생보·손보회사(7개사), 상사(8개사), 인재파견회사(6개사), 메이커 등(33개사), 정보서비스·통신(4개사), 감사법인 등(25개사), 경제단체·공적지원기관(39단체) 등을 중심으로 금융관계, 메이커, 소프트웨어관련기업, 컨설턴트 등 매월 약 100명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한다.

마켓은 만스리마켓(Monthly Market), 빅마켓(Big Market)이 있다. 만스리마켓은 월1회 개최되며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상사 등 벤처마켓협회회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설명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이다. 빅마켓은 연2회(1월, 7월) 개최되며 벤처기업의 사업계획의 설명이나 상담에 더하여 신제품전시회나 비즈니스교류회도 병행하여 대규모로 개최된다. ‘후쿠오카벤처마켓’ 프리젠테이션 기업모집 대상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매칭,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이나 신분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술제휴, 판로개척, 업무제휴, M&A 등의 프리젠테이션이다.

1999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후쿠오카벤처마켓’에서 프리젠테이션한 998건 가운데 참가국·지역을 보면, 후쿠오카현을 비롯한 일본 전역, 한국(19건), 홍콩(2건), 인도(4건) 말레이시아(1건) 등이다. 한국 벤처기업의 프리젠테이션 가운데 분야에서는 IT관련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역에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동남권은 2건에 불과하다.

‘후쿠오카산학 조인트 플라자’는 후쿠오카시, 후쿠오카상공회의소, 큐슈산업대 등이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후쿠오카시내의 이공계대학이 지닌 연구 시즈, 지역기업의 기술 니즈나 개발성과 등을 서로 발표하여 산학간에 새로운 산업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쿠오카현인턴십추진협의회’는 행정기관(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를 비롯하여 후쿠오카현 내의 대학(24개 대학, 5개 단기대학), 업계 등(후쿠오카현상공회의소 연합회 등 14개단체)이 참가하는 협회이다. 이 협회는 후쿠오카현 내의 배출인력을 후쿠오카현 내의 기업 등에서 실습·연수의 취업체험을 함으로써 인재의 활용 및 양성에 있어서 산학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표 15> 한국기업의 후쿠오카 벤처마켓에서의 프리젠테이션 현황

연번	기업명	프리젠테이션명	발표일	지역
1	Josuya Technology 주식회사	초고속 인터넷 액세스 디바이스(JAAT-650)의 제조·판매	'01.10	서울
2	라이스젠주식회사	다이어트에 좋은 기능성 쌀 z Club의 쌀	'01.7	경기
3	주식회사 DLTEC	무인점포 시스템	'02.7	대구
4	주식회사 KAKYO SOFT	한일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	'00.7	서울
5	주식회사 이담텍	자동변속 프리시스템의 개발·판매	'02.4	부산
6	주식회사 엘콘시스템	엘콘건설통합시스템	'02.1	서울
7	주식회사 昌駕정보통신	온라인 MUD&MUG 게임소프트웨어 『Geisters』	'01.1	서울
8	唯佳정보기술	인터넷환경의 대중화 : 대형 모니터와 터치버튼을 이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쌍방향정보서비스	'01.2	서울
9	Art of Technology Co. Ltd	인터넷 속도향상 소프트 Fast Internet Agent	'00.7	서울
10	IOBinc(아이오비주식회사)	IOB2000시리즈(TG)	'00.9	울산
11	(주)엔투커뮤니케이션	Internet telephony station 구축(인터넷 전화국 운영 서비스 컨설팅)	'02.4	서울
12	KUDOS KOREA INC	2002월드컵 공동개최에 있어서 캐릭터사업	'01.5	서울
13	K2Webtech	K2 Web Wizard 의 솔루션 판매확대 및 사업 제휴처 모집	'04.2	서울
14	주식회사 GS Phamatec Corp.	항암면역증강 작용 및 골수세포증식작용이 있는 Ginsan	'02.9	서울
15	DIPO Electrics	IH Cooking Heater의 판매 확보	'03.4	서울
16	Telenetpia	무선 핸드프리기기의 제조·판매(Batongee TN-301)	'01.6	서울
17	PSD Tech. INC	전력설비 On-Line 진단시스템 개발·제조·판매	'01.11	불명
18	(주)MODUSA	웹상의 가상 내비게이터	'00.11	서울
19	(주)MODUSA	웹상의 가상 내비게이터	'02.1	서울

주 : 1999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의 프리젠테이션 건수는 998건임.

자료 : www.ist.or.jp에서 정리.

‘기술이전기관(TLO)’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민간기업에 이전하여 제품이나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최근 일본에 확대되고 있는데,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국립대학 법인화를 계기로 대학은 Seeds push에서 Needs pull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는 대학교수가 개별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기술적 지도를 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국립대학의 법인화 이후 대학교수가 점차 시장에 대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TLO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표 16> 후쿠오카현에 있어서 TLO의 현황

TLO명	(주)산학연휴기구큐슈	(재)키타큐슈산업학술추진기구
형태	주식회사형	기존재단활용형
관계대학	큐슈대학(본채택)	九工大, 産業醫科大, 九州共立大, 西日本工大, 九州齒科大, 北九高専, 北九大, 福大資環研, 近大九州工學部
知財本部 선택의 여부	큐슈대학(본채택)	큐슈공업대학(준채택)
회원제의 유무	회원제	비회원제
승인 년월일	2000.4.19	2000.4.19 (2002.4.1변경승인)
국내출원 건수	193	132
국외출원 건수	23	7
라이선스 건수	34	51

주 : 기술이전실적은 2004년 3월말시점의 것임.

자료 : 九州經濟産業局(2004), 九州ベンチャー讀本, p.48.

4. 후쿠오카현의 국제적 산학협력의 사례

후쿠오카현에 있는 대학에 있어서는, 아시아에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외(특히 중국,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몇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아시아와의 대표적인 협력으로서는 큐슈대학과 부경대학(부산) 및 상하이교통대학과의 동아시아학술협력, 큐슈공업대학과 말레이시아의 팜오일제조공장에서 메탄을 사용한 발전시스템 연구 등이 있다.²⁵⁾

큐슈대학과 상하이교통대학의 국제적 산학협력 사례를 보면, 양 대학이 중개역이 되어 큐슈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을 상하이 주변지역의 기업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

25) 九州經濟産業局(2003. 4. 23), '産學官連携による地域經濟社會の發展を目指して一産學官連携活性化への道-' 報告書について 참조.

하고 있다. 더욱이, 최첨단기술이 아니고, 소위 로우테크 분야에 초점을 맞춘 대학주도의 기술이전이다.

그 틀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⁶⁾

① 중국지역기업기술 니즈의 발굴

상하이교통대학의 상하이교통대국제기술이전센터에서는 강소성과 절강성의 과기국과 긴밀하게 연계가 있어, 과기국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장기로 하는 기술이나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니즈 등의 상세한 기업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과기국을 통해서 상하이교통대국제기술이전센터에 지역중견·중소기업의 기술니즈가 발굴·집약된다. 또는, 이미 연계가 있는 지역중견·중소기업으로부터는 직접 기술니즈가 국제기술이전센터에 모인다.

기술니즈 발굴 등을 위해,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상하이교통대의 새로운 연구의 성과인 기술을 공개하고, 지방정부로 그것들을 통지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에서 기술관계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상하이교통대학을 초빙해서 새로운 기술을 회의참가자 등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

② 큐슈대에 제휴 신청

상하이교통대는 큐슈를 대표하는 큐슈대에 교량기능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큐슈대학측은 법인화 후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력으로만 경쟁력을 강화해 가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상하이교통대와 연계하는 것이 이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제휴 신청을 받아들여 양 대학은 2002년 12월에 제휴했다.

③ 큐슈대측에서의 일본기업의 기술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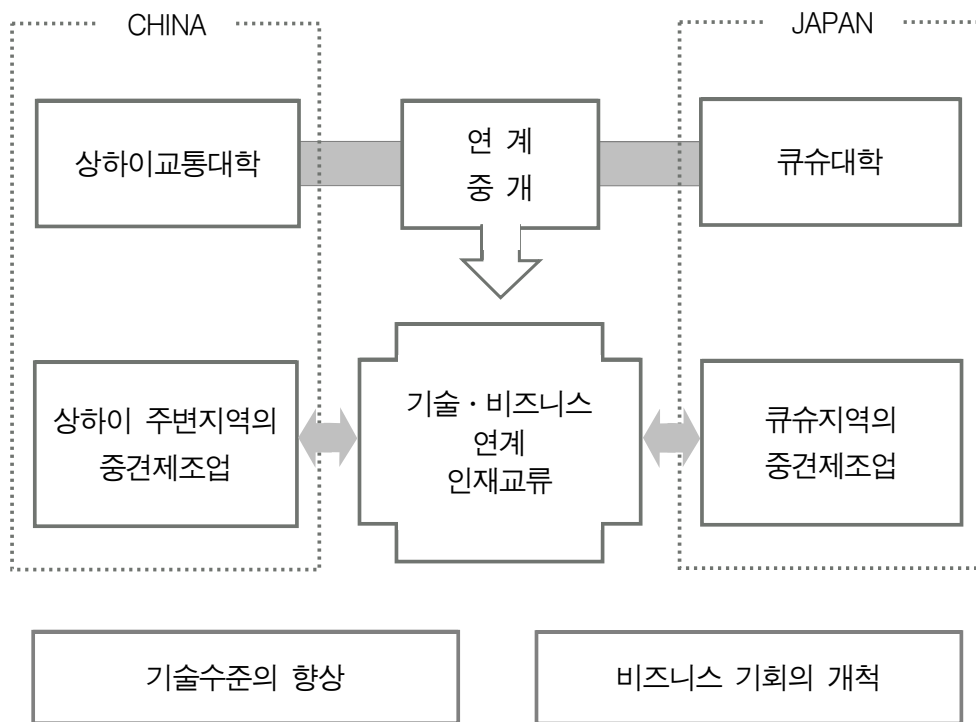
큐슈대 지적재산본부측에서는 상하이교통대로부터 발신된 기술니즈 안건을 큐슈 등의 지역중견·중소기업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기관(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후쿠오카JETRO, 기타큐슈JETRO, 후쿠오카현중소기업진흥센터 외)에 요청하여, 큐슈상하이국제산학연합회의회(가칭) 준비회를 설립했다. 큐슈대 지적재산본부에서는 상하이교통대학으로부터의 기술니즈 안건을 거기에 소속된 멤버에게 발신하고, 적절한 기술을 이전에 연구개발을 했다든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소개받는 틀을 구축하고 있다.

26) 林聖子(2004.7), 上海交通大學における國際産學官連携への取り組み -九州大學との連携を中心として、産業立地, 日本立地センター, pp.53~54.

④ 일본기업에서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발굴된 일본기업의 기술은 큐슈대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이교통대국제기술이전센터측이 중국기업에 기술이전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을 판단한다. 기술이전이 실시된 경우에는 중국기업에 의한 사업화나 제품화에 있어서 상하이교통대국제기술이전센터가 적의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이러한 국제적 산학관 협력에 의해서 중국은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기술의 유효활용, 일본으로부터의 유학귀국자의 활용, 상하이교통대 졸업생 네트워크의 강화, 산학관연계에 의한 지역산업·지역기업의 파악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진출에서의 리스크 회피, 중국에서의 인재확보 등을 할 수 있다.



자료 : 谷川徹(2003.10.17), 九州大學の産學連携の試み、經濟産業研究所 BBLセミナー, 九州大學 産學連携センター 知的財産本部.

<그림> 큐슈대학과 상하이교통대학의 대학중심 국제적 산학협력의 틀

5. 동남권-후쿠오카현간 산학협력 방안

동남권과 후쿠오카현은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관련기관들이 집적되어 있어 양 지역간의 산학연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양 지역은 대용량 광화이버로 연결되어 있어, 리얼타임으로서 영상회의가 가능한 정보기반을 갖추고 있다. 양지역의 전략산업분야에서는 바이오, 나노, 자동차, 환경리사이클, 로봇, IT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소프트분야에 있어서 양 지역의 산학협력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양 지역이 모두 산학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산학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성공사례도 적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양 지역간 산학협력의 실현을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매개기능을 담당하는 양 지역의 기관이 활발히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권의 입장에서 몇 가지 양 지역간 산학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큐슈대학과 상하이교통대학의 경우와 같이, 후쿠오카현의 대표대학과 동남권의 대표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남권-후쿠오카현의 산학연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남권의 대학들이 동남권내 지역기업들의 기술적 니즈를 해소시켜 주고,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산학협력관련부서와 큐슈경제산업국 산학관연휴추진실이 중심이 되어 양지역의 대학과 기업을 광역적으로 매칭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큐슈경제산업국 산학관연휴추진실을 대응할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

셋째, 벤처마켓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후쿠오카벤처마켓의 경우, 한국과의 교류실적이 있어 후쿠오카벤처마켓에 동남권의 연구자나 벤처기업이 진입하는 형식의 산학협력이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만, 동남권의 대학과 벤처기업이 일본의 벤처마켓의 틀과 사업문화 등을 충분히 습득하여 후쿠오카벤처마켓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후쿠오카벤처마켓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한편, 후쿠오카벤처마켓에서 연 1회 정기적으로 동남권-후쿠오카현 빅마켓을 개최하거나, 동남권의 관련기관이 캐피탈로서 후쿠오카벤처마켓에 참여하거나, 양 지역의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남권-후쿠오카현 벤처마켓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넷째, TLO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양 지역이 TLO를 통하여 연구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동남권에는 아직 대학 TLO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부산의 부산기술거래소와 후쿠오카현에 있는 TLO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섯째, 회의체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이것은 큰 부담없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상호교류하면서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양 지역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환황해기술교류회의, 아시아링크큐슈비즈니스교류회, 큐슈·한국산업기술교류미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이다. 자치단체 또는 광역권 차원의 산학협의체를 연계한 산학협력이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현인턴십추진협의회를 모델로 한 동남권인턴십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양 협회를 연결하여 양지역에서 배출된 인재를 활용하고 육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양 지역의 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일해협권인턴십추진협의회’의 설립·운영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산학협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정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양지역에서 상호 정보를 수집하여 발신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즉, 동남권과 후쿠오카현에 각각 거점기관을 정하여 상호 포털 사이트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정보를 수집, 번역하여 홈페이지 올리고, 주요한 관계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화충돌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양 지역간 산학협력시 나타날 수 있는 언어문제, 상관습충돌문제, 문화충돌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호 연구회 등을 설치하여 연구하고, 연구회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맺는 말

양 지역 모두 산학협력에 있어서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공적 매개기관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대부분 행정구역이나 자국 내에서의 산학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제 글로벌화의 진전 등 변화에 부응하여 타 지역, 타국과의 산학협력이 요청되고 있다.

200km의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의 남부지역에서 인구와 경제력이 집적되어 있는 동남권과 일본의 큐슈지역에서 인구와 경제력이 집적되어 있는 후쿠오카현이 상호 보완성을 살려 국경을 넘어선 지역간 산학협력을 시도해 볼만하다.

하지만, 양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제각기 상호 니즈를 파악하여 협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양 지역간 산학협력은 산학협력의 매개기관을 확보하고 이들을 잘 매칭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동남권으로서는 TLO, 후쿠오카 벤처마켓 등 후쿠오카현의 산학협력 매개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남권에

서도 후쿠오카현의 매개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산학협력 매개기관을 광역권 차원에서 설립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양 지역간 산학협력에 있어서 관련정보가 원활히 소통되어야 한다. 또한, 양 지역간 언어의 학습, 문화의 이해 등으로 산학협력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금성근(2003), 부산지역 산학관 협력 활성화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윤윤규·이재호(2004), 지역산업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2004), 2004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4), 두뇌한국21 사업실적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4), NURI사업선정 결과.
- 經濟産業省 大學連携推進課(2001. 3. 21), 産學連携の推進に對する取組み.
- 九州經濟産業局(2003. 4. 23), '産學官連携による地域經濟社會の發展を目指して
一産學官連携活性化への道一' 報告書について.
- 九州經濟産業局(2004a), 九州地域における産學官連携.
- 九州經濟産業局(2004. 3), 九州地域大學發ベンチャー事例集
- 九州經濟産業局(2004b), 九州ベンチャー讀本2004.
- 九州經濟産業局(2005. 5), 『アジア一番圈』の實現の向けて.
- 九州經濟産業局(2004. 10),九州アジア國際化レポート2004.
- 九州經濟調査協會(2004), 圖說九州經濟.
- 西日本新聞社 廣告局(2004), 九州データ・ブック2005.
- (社)九州・山口經濟連合會(2003), 九州・山口地域における新規事業支援策.
- FVM, Fukuoka Venture Market.
- 谷川徹(2003.10.17), 九州大學の産學連携の試み、經濟産業研究所 BBLセミナー, 九州大學
産學連携センター 知的財産本部.
- 林聖子(2004.7), 上海交通大學における國際産學官連携への取組み-九州大學との連携を中
心として、産業立地, 日本立地センター.